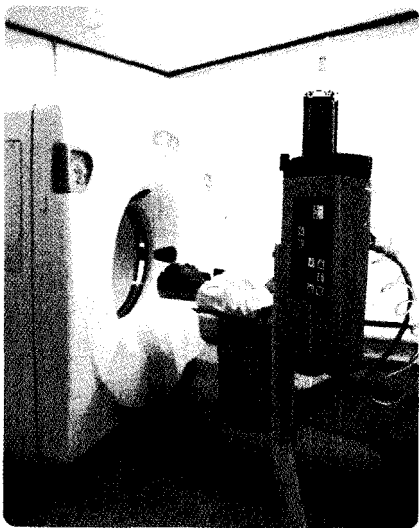


美 국가조정국(ONC), 의료 IT 인증프로그램 개설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기대



▲ 미국 국가조정국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정확한 의료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과 전자 의료기록 인증기관을 위한 임시 의료 IT 인증프로그램을 곧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美 국가조정국(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ONC)이 지난 6월 17일 시험기관과 전자의료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EHR) 인증기관을 위한 임시 의료 IT 인증프로그램을 곧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ONC는 지난주 임시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법안을 발표했으며, 이 법안에는 시험 기관과 EHR 인증기관은 반드시 ONC에서 승인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IT벤더가 제품과 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해 인증기관이나 시험기관이 제 시간에 요구사항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법안은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6월 24일 출판돼 연방관보에 게시되었다. 7월 1일부터는 ONC 공인시험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들의 신청서를 접수해 진행시킨다.

ONC의 인정과 시험과장인 Carol Bean은 "ONC 공인 시험과 인증기관들이 이번 여름 말부터 시험과 인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올해 가을쯤에는

EHR인증 받은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ONC는 ONC공인 시험과 인증기관들의 리스트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인증서비스는 EHR시스템이나 EHR모듈을 구입하면 제공

미국 의료정보 코디네이터인 David Blumenthal박사는 인터뷰에서 "최종 법안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정확한 의료정보를 습득하게 해 미국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증서비스는 EHR시스템 혹은 EHR모듈을 구입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해 제품과 서비스가 예상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효과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개선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NC는 향후 시장관리를 위해 모든 인증받은 EHR제품을 인증의료 IT 제품리스트로 작성해 보관한다. ONC는 모든 인증기준을 통과한 인증제품과 모델에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약 22조원의 예산이 배정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안(HITECH,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에 따른 이 인증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 미국 국립기술표준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도 협력하고 있다.